

# 화장장 포화 광주 영락공원, 제2화장장 신축 지연 우려

### 공사비 급증에 제3봉안당 우선 건립...제2화장장은 2026년 이후 재검토 광주 화장률 94%로 증가세 속 화장장 부족...예약 못해 4일장도 잇따라

광주-전남 장례 문화가 '화장' (火葬)으로 바뀌에 따라 화장시설이 포화상태를 맞고 있지만 화장장 신축이 지연돼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화장장 포화상태로 발인을 늦춰 4일장으로 치르는 게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 인프라가 서둘러 확충되지 않으면 장례 차질이 일상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초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제3봉안당(지하1-지상3층, 연면적 6000㎡)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

당초 같이 건립하기로한 제2화장장(지상 2층 규모 화장로 9기) 건립 검토가 2년 뒤인 2026년으로 연기됐다.

광주시는 '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2019-2023)에 따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총예산 210억 원(국비 82억, 시비 128억)을 들여 제3봉안당, 제2화장장 확충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공사(주차장, 도로확장 등)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사업비가 증액(132억원)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만장이 예상되는 봉안시설(1·2추모관)을 확충하기 위해 제3봉안당을 우선 건립하고 화장장 건립을 2026년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비 현실화로 물가상승분(59억)과 감리비 상승분(30억)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화장장까지 건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명절에 집중되는 봉안당 이용자를 위해 제1·2주차장을 확충하고 유족을 태우고 화장장을 오가는 대형버스 대기 공간 확보 등 추가공사가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초 사업비보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투자심사, 재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밟을 수 없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2025년 화장장 건립 국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시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년 뒤 만장이 예상되는 봉안당을 우선 건립하고 화장장 건립은 2026년 이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화장장 이용이 몰려 장례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지역 화장률은 2017년 85.3%(7560명 중 6451명이 화장)에서 2020년 92.3%(7785명 중 7185명)까지 급증했고, 2021년 92.6%(7981명 중 7392명), 2022년 94.4%(9350명 중 8825명)로 증가세다.

현재 영락공원 화장장의 화장로는 11기로 하루 최대 수용량은 총 49건이다. 올해 9월 29일까지 9670건의 화장이 진행됐다. 하루 평균 화장 건수가 35건이 넘는 셈이다.

광주시는 49건이 모두 차는 경우는 올해 3월 단 한차례 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광주지역 장례식장 관계자는 "화장장 예약을 하지 못해 10명 중 1명은 4일장을 지낸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유일한 화장장인 광주시 북구 효령동의 영락공원 승화원(화장장)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환절기를 맞아 고령의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화장이 몰려 4일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 광주지역 장례식장의 설명이다.

올해 영락공원 화장장 일반 화장 건수를 보면 40건을 넘어선 날이 전체 273일 중 66일에 달했다. 특히 날씨가 추운 1월부터 4월까지 39건으로 두자

릿수로 집계됐다는 점에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환절기와 다가오는 겨울철 화장장 포화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전남에는 목포, 여수, 광양에 화장장이 설치돼 있지만 곡성과 구례, 화순, 영광, 장성 등 일부 지역은 광주지역 화장장이 더

가깝다는 점에서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통 유족들이 발인을 하면서 오전시간대 화장을 하길 원해 오후 일정은 비어있더라도 오전 일정이 꽉차 있어 4일장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마세라티 뺑소니범·조력자 여죄 추적

### 광주서부경찰, 보이스포싱·불법도박 등 연루 가능성 조사

경찰이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9월 25일 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해 고급의제차(마세라티)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들의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

도피 조력자들의 범죄 전과가 적지않고 운전자가 가명으로 해외에서 머물며 대표폰을 손쉽게 입수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외제차 뺑소니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32)씨와 도피 조력자들이 해외 보이스포싱, 온라인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등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수 차례 범죄 전과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동안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때 광주시 북구에 거주했으나 행정당국에서 확인 결과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지난 2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됐다.

A씨는 태국에서는 가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으

며, 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서울에서 A씨의 도피를 도운 B(33)씨와 대전까지 A씨를 태워다 준 C(32)씨도 사기 등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B씨는 A씨와 함께 수차례 태국 등을 같이 오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B·C씨와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30)씨 모두 무직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고급 외제차량도 의문을 낳고 있다. 이 차량은 서울 지역 법원 명의의 차량이지만, 차량 보험 가입자와 그로부터 차량을 빌렸다는 A씨 모두 해당 법인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지문이나 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법원 차량이 어떻게 광주로 오게 된 것인지, 현 차량 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등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첫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해' 피의자는 30살 박대성

순천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30·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0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전남에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된 사례

는 지난 2010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B(1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당시 소주



4명 정도를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씨의 신상정보(얼굴, 나이, 성명)를 홈페이지(www.jnpolice.go.kr)에 30일간 공개할 예정

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순천 조례동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차원에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수서 물놀이하던 초등생 바다에 빠져 숨져

여수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일 여수해경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여수시 웅천동 웅천천수공원 앞 해상에서 A(12)양과 B(14)·C(11)양이 바다에 빠져

다.

B양은 인근 행인에 의해 구조됐으며, C양은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A양은 실종돼 한 시간여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여수시는 A양이 물놀이 도중 물에 떠 있는 튜브

를 잡으려고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A양 등은 이날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천수공원에 들렀으며 인근에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